

## 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동향 |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산지난가는 약세를 형성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발생으로 전통시장·할인마트 등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여름방학과 휴가 등으로 계란 소비는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산란계농장들에서는 연일 한낮의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폭염으로 고온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폐사가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장경영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여름철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계란의 품질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마스크와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난 난가공 위생문제 이후 또다시 계란 유통의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3개월미만 산란계 사육수수는 929만수로 평년대비 7.8%로 크게 증가해 신계군의 계란 생산가담으로 잔알 생산이 크게 늘어나 난가 인상에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 | 자료분석 |

지난 7월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69,760수로 전월(24,000수)대비 190.7%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52,500수)대비 32.9% 감소하였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4,087천수로 전월(4,298천수)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4,258천수)대비 4% 감소하였다. 6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35,605톤으로 전월(34,501톤)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28,692톤)대비 24.1%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192,366톤으로 전월(193,050톤)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163,820톤) 대비 17.4% 증가하였다. 6월 산란종계사료는 5,935톤으로 전월(5,673톤)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4,905톤)대비 21% 증가하였다. 한편 6월 산란성계육은 2,977천수로 전월(2,735천수)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2,069천수)대비 43.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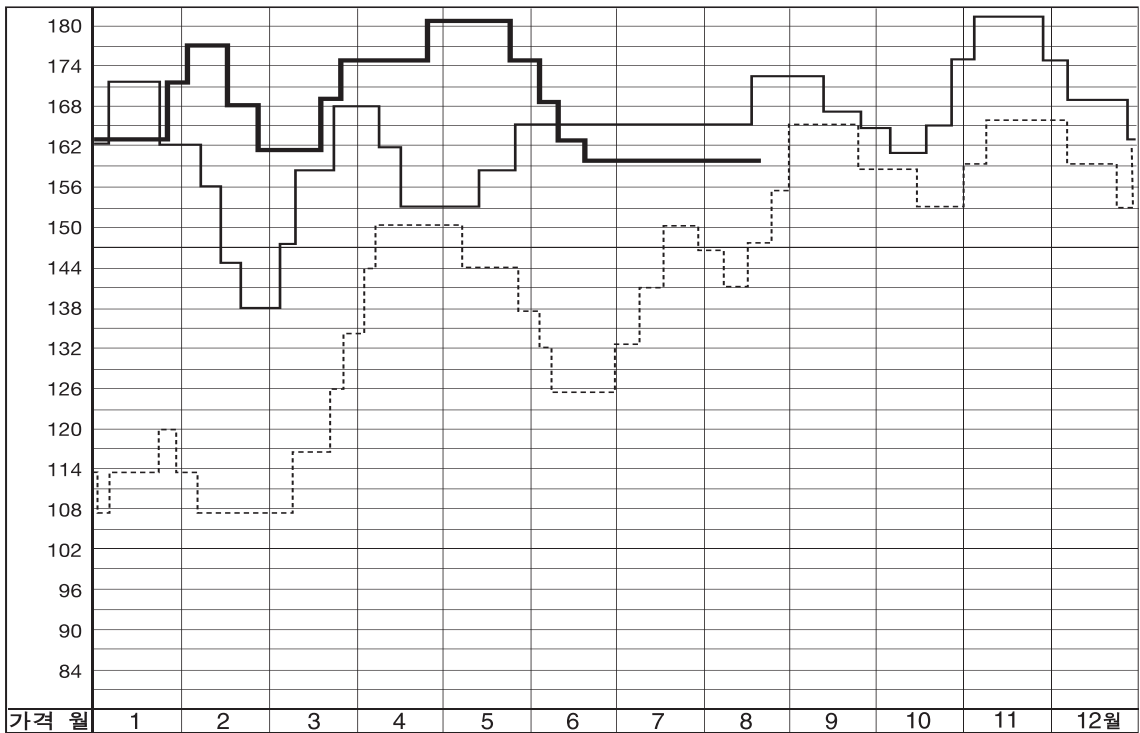
### | 전망 |

난가는 8월말로 접어면서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학교급식과 할인행사, 추석 등 인상요인들을 앞두고 있어 재고물량 확보를 위해 산지 수집상들이 계란을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과채류를 비롯해 농축산물들의 가격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계란의 소비는 되살아 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잔알의 생산량 증가가 시세 인상에 발목을 잡고 있어 반등의 폭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은 자체 소비의 존도가 높아 약간의 계란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의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한 산란계 사육수수로 추석 이후 다시 장기간의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 병아리 입식자제와 조기도태를 통한 생산조절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다.

## 이달의 계란전망

이상목 차장  
경영정책국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3-- 2014- 2015-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015	101,280	4,352	33.2	204.2	1,450	1,645
2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2015	69,000	3,350	30.5	178.6	1,379	1,711
3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2015	39,700	4,285	34.1	197.7	1,350	1,667
4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2015	80,000	3,816	35.0	197.3	1,350	1,758
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2015	64,000	4,529	34.5	193.0	1,300	1,787
6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15	24,000	4,298	35.6	192.4	1,278	1,646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2015	69,760	4,097			1,250	1,600
8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2015						
9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2015						
10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2015						
11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76,400	3,754	30.3	182.7	1,450	1,804
	2015						
12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29,600	4,536	34.9	208.1	1,450	1,692
	2015						
계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536,380	44,321	356.3	2,154.0	1,346	1,643
	2015						